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4호는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이 만들어낸 혼종적 정체성을 “이주와 인종주의의 문화사”라는 특집으로 엮어냄과 동시에 “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호 특집주제를 다룬 신정훈은 「서독 기억 문화에서의 ‘강제추방’과 ‘피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추방이나 피난의 역사를 공유하는 독일 실항민들의 희생사를 설명하면서 ‘난민’, ‘실항민’ 등 다양한 층위가 중첩되는 혼종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신정훈은 독일인들의 강제이주 경험을 단순히 피해 사례의 하나로 수집하고 정리하려했던 서독 정부와는 다르게 실항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희생자담론에 주목하고 있다. 신영현은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 위안부 여성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1997년 출간된 소설 『중군위안부』의 저자 노라 켈러의 서술기법을 통해 보여준다. 즉, 신영현은 저자 켈러가 자유직접화법과 교호적 소설쓰기 방법으로 침묵당한 희생자 위안부들의 목소리를 복원시키고 두 제국주의(미국과 일본) 문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나 모두에 해당되는 혼종적 정체성을 같은 여성(딸)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다문화 한국’시대에 다시 열어본,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에서 홍상현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이 낳은 ‘혼혈 고아’의 서사를 작가 주명덕의 사진전을 통해 소개한다. 부연설명도 없는 근접촬영으로 부각시킨 ‘혼혈 고아’의 사진전 속 모습이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는 홍상현은 주명덕의 사진전이 사진기록을 통해 작금의 다문화 한국을 설명하는 확장적 발전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인종주의의 특징과 혼종적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외에도 박민경은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에서 원거리 통치

체제와 피통치자의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지배자에 대한 정치, 문화적 통합 전략과 그에 대한 저항의 길항관계를 고찰한다. 이 논문은 특히 백제멸망 이후 당나라가 백제 고토에 설치한 웅진도독부가 당나라의 관료가 아닌 백제계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관청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민경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당시 웅진도독부의 친당적 성향을 시대적 한계로 지적하는 동시에 백제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웅진도독부를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최강화는 20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19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와 다문화와 관련한 키워드들의 변동 간의 관계를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통해 측정한다. 다양한 키워드들의 질적 변동을 추적함으로써 최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해운은 「나치고고학의 등장 과정과 고든 차일드의 대응, 1933-1935」를 통해 20세기 전반 선사고고학계를 대표하는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의 역사관과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박해운은 차일드가 19세기를 대표했던 유럽중심적 노르만주의를 반박하는 방법으로 동방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사실, 즉 문화사적 방법론으로 증명했음을 강조한다.

이번 호를 시작으로 『호모미그란스』는 “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이라는 연재를 기획했다. ‘호모미그란스’에 대한 우리 학술지의 연구 성과가 현상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론적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연재로 양재혁의 연구를 소개한다.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읽기」에서 양재혁은 서구의 이분법적 근대성의 균열을 지적한 역사가 세르토의 역사서술에 대한 (재)사유를 제안한다. 양재혁은 세르토에게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이지만 그 누구만의 고유영역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혼종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의미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호모미그란스』는 이동(이주)하는 인간에 대한 활발한 역사이론 연구가 지속되길 희망한다.